"개막 축포 내가 쏜다"

〈에두〉

〈배기종〉

〈데닐손〉

〈스테보〉

역대 개막전 26경기중 전반 30분 이내 19골 터져

수원 에두·배기종, 포항 데닐손·스테보 등 0순위

■K-리그 내일 개막

2009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축포는 누가 쏘아 올릴까?

아무래도 지난해 K-리그 챔피언 수원 삼성과 FA컵 우승팀 포항 스틸러스 간 올 시즌 프로축구 공식 개막경기에서 나올 확률이 높다.

수원과 포항은 7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K-리그 1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이어 30분 뒤 전남 드래곤즈-FC서울 경기가 광양전용구장에서 킥오프된다. 물론 동시에 열린 경기 수에 따라 사정은 달라지겠지만 1983년 출범해 지난해까지 스물여섯 해를 보낸 한국 프로축구에서 26차례 시즌 개막골 중 22골이 전반에 나왔다.

그리고 이 중 19골이 전반 30분 이내에 터졌다. 역대 개막 첫 골 중 가장 빠른 것은 전반 4분 만에 나오기도 했다.

1996년 전북의 비탈리가 부산전에서, 2004년 부산의 마스덴이 서울전에서 각각 기록했다.

개막경기에서 맞설 수원과 포항 선수 중에서도 에두와 배기종(이상 수원), 데닐손과 스테보(이상 포항) 등 선발 출전이 예상되는 공격수가 2009시즌 첫 골을 터트릴 공산은 크다.

한국 프로축구에서 리그컵대회와 정규리그를 통틀어 시즌 첫 골의 주인공은 원년 득점왕 박윤기(당시 유공)를 비롯한 이태호(1985년·대우), 김종부(1990년·대우), 김현석(1992년·현대), 황보관(1994·유공), 라데(1995년·포항), 안정환(2000년·부산), 샤샤(2002년·성남) 등 대부분 당대 최고의 공격수였다.

물론 지난해 포항의 수비수 김광석처럼 의외의 인물이 개막축포를 쏘아 올릴 가능성은 열려 있다. 2005년 광주 상무에서 뽑아낸 단 한 골이 유일한 득점이었던 김광석은 지난해 3월8일 전남과 개막경기에서 전반 26분 선제골을 터트려 시즌 1호 득점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막 첫 골은 개인적 기쁨은 물론 팀 승리와도 직결돼 의미가 더 크다. 역대 개막 축포가 터진 경기에서 승패가 갈린 것은 총 18차례. 이 중 첫 골을 넣고도 역전패를 당한 경우는 두 차례(승부차기 패 포함)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수원 삼성, 이운재에 300경기 출전 기념패 전달

수원 삼성이 7일 오후 3시 수원월드컵경기장에서 치러지는 포항 스틸러스와 2009 정규리그 개막전에 앞서 골키퍼 이운재(36)의 K-리그 통산 300경기 출전을 축하하는 기념패를 전달한다.

이운재는 지난해 11월 1일 전남 드래곤즈와 정규리그 25라운드 홈 경기에서 역대 21번째로 K-리그 통산 300경기에 출전해 무실점으로 선방하면서 팀의 3-0 승리에 기여했다.

이운재는 정규리그 최종전과 챔피언결정전 두 경기를 더 치르면서 지난 1996년 수원의 창단 멤버로 입단해 11시즌 동안 303경기에 나서 303실점(평균 실점률 1.00)을 기록 중이다. /연합뉴스

박지성 역전골 도움…맨유 11연승

박지성(28·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이 역전 결승골을 어시스트하며 선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리그 11연승에 큰 힘을 보탰다.

박지성은 5일 오전(이하 한국시간) 영국 뉴캐슬 세인트 제임스파크 스타디움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2008-2009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원정경기에서 전·후반 90분을 모두 뛰면서 후반 11분 디미타르 베르바토프의 결승골을 어시스트했다.

올 시즌 2호 도움. 지난달 19일 풀럼과 정규리그 홈 경기(3-0 승)에서 웨인 루니의 추가골을 도와 시즌 첫 어시스트를 기록한 이후 14일 만의 공격포인트다. /연합뉴스

박주영 선발…모나코 FA컵 8강

박주영(24)이 선발출전한 프랑스 프로축구 AS모나코가 FA컵 8강에 올랐다.

박주영은 5일 새벽(한국시간) 프랑스 프랑스와코티에서 열린 2008-2009 프랑스 FA컵(쿠프 드 프랑스) 16강 AC아작시오(2부리그)와 원정경기에서 2-0으로 이겼다.

이로써 모나코는 올 시즌 정규리그에서 최근 4경기 연속 무승 행진(2무2패)을 이어가다 이번 FA컵 8강 진출로 상승세 분위기로 돌아설 수 있게 됐다.

지난 2일 생테티엔과 정규리그에서 2도움을 기록했던 박주영은 득점을 올리지는 못했지만 교체 없이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 승리에 힘을 보탰다. /연합뉴스

문화부,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삶의 질 향상 등 16개사업에 63억

정부는 엘리트 위주의 장애인 체육 정책을 생활체육 서비스 강화 쪽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최종학 체육국장은 5일 '2009년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4개 부문 16개 세부 사업에 총 63억6천4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6.3% 수준이던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을 올해 7%, 2012년 10%까지 높이겠다는 것이 문화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차량 4대를 공모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4곳에 배정하고 16개 시·도에 장애인 체육 지도자 96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 장애 유형별 생활 체육교실 및 장애인 동호인클럽 운영에 11억원 등을 각각 지원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안면 강타 충남 신성대 정윤환 선수(왼쪽)가 5일 강진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종별태권도선수권대회에서 제주 탐라대 강경탁 선수를 상대로 오른발 내려찍기로 안면을 강타하고 있다. 〈강진군청 제공〉

교포 '양박' 공동선두

〈안젤라박·제인 박〉

LPGA HSBC대회 1R 5언더

신지애는 이븐파, 25위 그쳐

한국자매들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HSBC 위민스 챔피언스 첫날 상위권에 포진하며 시즌 첫 우승의 가능성을 높였다.

5일 싱가포르 타나메라 골프장(파72.6천547야드)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에서 재미교포 제인 박(22)이 보기 없이 버디 5개를 골라내 5언더파 67타로 브라질 교포 안젤라 박(21·LG전자), 폴라 크리머(미국)와 함께 공동 선두로 나섰다. 이선화(23·CJ)도 4언더파 68타를 쳐 미야자토 아이(일본)와 함께 공동 4위로 첫날을 마쳤다.

박세리(32)도 3언더파 67타로 공동 6위에 올라 모처럼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박세리가 60대 타수를 친 것은 작년 8월 캐나다 오픈 3라운드에서 68타를 기록한 이후 7개월만이다. 지은희(23·휠라코리아)도 박세리와 함께 공동 6위에 합류,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한국 선수가 5명에 이르렀다.

지난 주 시즌 데뷔전에서 첫 우승을 신고한 여제 로레나 오초아(멕시코)와 개막전 SBS오픈 우승자 안젤라 스탠퍼드(미국)도 3언더파 69타로 공동 6위에 포진, 대회가 끝날 때까지 팽팽한 접전을 예고했다.

한편 신지애(21·미래에셋)는 버디 3개를 보기 3개로 맞바꿔 공동 25위(72타)에 그쳐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연합뉴스

"평창 유치 신청땐 적극 지원"

박용성 대한체육회장

"평창이 2018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신청한다면 내 임기 중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박용성 대한체육회 회장이 5일 세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에 나선 강원도 평창의 개최 후보지로서 경쟁력을 높게 평가하고 공식적인 신청 절차를 밟는다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 회장은 이날 오후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에서 "아직 2018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신청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종전 2월에 유치 신청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4월로 두 달 늦췄다"면서 "개최지가 2011년 결정되는데 내 임기가 2013년 1월까지기여서 공식적인 신청을 한다면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이용대-이효정, 16강 안착 전영오픈 혼합복식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빛나는 이용대-이효정(이상 삼성전기) 조가 2009 전영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16강에 올랐다.

이용대-이효정조는 5일(한국시각) 영국 버밍햄 국립실내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이틀째 혼합복식 32강에서 대만의 팡치에민-청원싱조에 세트스코어 2-1로 이기면서 16강에 진출했다.

이용대와 이효정은 남녀복식에서도 각각 신백철(한국체대), 이경원(삼성전기)과 짝을 이뤄 16강에 올랐다.

이밖에 남자복식 황지만-한상훈, 권이구-유연성조, 여자복식 김미영-장예나, 김민정-하정은조, 혼합복식 고성현-하정은조, 여자단식 배연주도 16강에 진출했다. /연합뉴스

스포츠중계

6일(금)

▲코리아오픈 프로페셔널 댄스선수권(13 : 20·MBC)

▲프로농구 〈KTF : 오리온스〉(19 : 00·MBCESPN·Xports), 〈KT&G : SK〉(19 : 00·SBS스포츠)

▲2009 ISU 세계쇼트트랙선수권 1500m(22 : 50·SBS)